

LG-호남, 석유화학 주가 쌍끌이!

대-중소기업 수익률 양극화 심화 ... 향후 추가상승 메리트 높아

대형 화학기업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격을 경신하는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는 반면, 중소형 화학주식들은 시장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적 석유화학기업의 주가는 2003년 초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90% 가량 상승한 반면, 대표적 중소형 화학기업의 주식은 20-30%대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일부 종목은 연초보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곳도 있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6개월 전보다 주가가 각각 30%와 68.3%나 상승했고 LG석유화학과 한화석유화학은 상승률이 53.5%와 59.1%에 달했다.

반면, 중소형 종목인 이수화학, 국도화학, 삼성정밀화학은 6개월 전 주가보다 18.7%, 9.0% 및 3.1%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종목 중 코오롱유화와 SKC 정도만이 107.8%와 35.8%로 6개월 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결국 대형 화학주와 중소형 화학주의 주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대변된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주가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향후 실적 개선 속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형주에는 대부분이 석유화학주가 집중돼 있는데 석유화학 종목은 업황 회복 흐름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석유화학 경기는 3/4분기를 바닥으로 4/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관련기업의 실적 개선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기업의 주가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 반영도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한화증권 이광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석유화학기업들이 생산하는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의존도가 50% 이상 달해 아시아 원물가격에 의해 수출가격은 물론 내수가격도 좌우되는데 향후 석유화학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기업의 수익 신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계는 물론 증권가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는 경기저점을 높여가는 회복국면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께 석유화학 경기의 정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석유화학 종목에 대한 매수 여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논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중소형 화학주는 대형 석유화학주와는 달리 수익구조가 내수 쪽으로 한정된 탓에 수익성 개선 속도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즉, 펀더멘털 측면으로 보면 실적개선 속도가 더딘 만큼 주가 상승 흐름도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공급상의 제약도 꼽히고 있다. 중소형 주중 1일 평균 거래량이 5만주를 넘어서는 종목은 삼성정밀화학, SKC, 동양제철화학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포트폴리오 편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으로도 부적합해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26>